

페루, 해군 재건을 위한 추가 예산 승인

페루 해군은 재건사업을 위해 5,940만불을 추가로 배정받게 된다. 이 중 약 3,130만불은 “수상함군 작전 능력 향상” 프로그램에 배정될 예정이며, 이는 루포급(카르바잘/아귀레급) 미사일프리깃함을 점진적으로 대체할 2,900~4,500톤급 다목적함정 6척을 건조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.

동 예산은 이전에 할당된 1.2억불에 추가하여 연말까지 건조를 시작하고 2028년에 취역해야 하는 첫 번째 함정 건조 자금을 지원할 것입니다.

1,500~2,200톤급 해상 순찰선(OPV) 3척 건조를 목표로 하는 “해양 영역에서 장기간 해상 해안 경비대 작전 및 SAR 지역 수색 구조 작전 수행 능력 회복” 프로그램에는 지난 1월 배정된 9,550만불 추가로 1600만 달러가 지원될 예정입니다.

해상 순찰선 BAP 리오 카네테(PM-205).

“페루 해안 해상 물류 공급 능력 확장 - 보조 물류 수송선 프로그램 “에는 자연 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해안 인구에 대한 지원품을 전달할 수 있는 건설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초에 배정된 2,220만불에 추가로 370만불을 받게됩니다.

“해상 해안 경비대 및 수색 구조 작전(SAR) 역량 회복” 프로그램

1월에 배정된 9,550만불에 더해 1,600만불이 지원되며, 이를 통해 BAP 리오 후아르메이와 BAP 리오 네페냐 연안 경비정 건설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. 2013년에 체결된 설계 및 기술 이전 계약을 통해 한국의 STX 조선해양과 건조 계약을 체결한 이 두 척은 칠보테의 SIMA 조선소에서 건조될 예정입니다. 이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까지 SIMA(페루 국영조선소) 칠보테는 해안경비대 및 해안경비국(DICAPI)의 명령에 따라 감시, 순찰 및 차단, 의료 지원, 수색 및 구조(SAR) 임무를 수행하는 6척을 건조 및 취역한 바 있습니다.

처음 취역한 2척은 BAP 리오 파티빌카(PM-204)와 BAP 리오 카네테(PM-205)는 2015년 11월 30일에 진수되어 2016년 3월 28일에 시운전을 시작했고, BAP 리오 피우라(PM-206)와 BAP 리오 필카(PM-207)는 2016년 10월에 진수되어 2017년 2월에 시운전을 시작했습니다. 마지막 2척인 BAP 리오 로쿰바(PM-208)와 BAP 리오 툼베스(PM-209)는 2021년 3월 19일부터 시운전된 바 있습니다.

(defensa.com 10.25일자/ 알레호 마르케시니, 에데파 그룹 리마 특파원).